

영광군 ‘10만 자립도시’ 도약 시동

선순환에너지 전환 중심도시 조성
일자리·경제활성·인구유입 등 기대
‘지산지소’ 전력소비 구조변화 추진

영광군이 신재생에너지 자원을 중심으로 한 지역 주도형 성장 모델을 제시하며, ‘인구 10만 자립 도시’ 도약을 위한 청사진을 구체화하고 있다.

해상풍력과 태양광 등 자연 자원을 신재생에너지 산업으로 연결하고, 이를 기반으로 산업단지 조성, 고용 창출, 인구 유입까지 이어지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25일 영광군에 따르면 영광은 신재생에너지의 최적지로 손꼽힌다. 연간 일사량은 4.0~4.2 kWh/㎡에 달하고, 평균 풍속은 6.0% 이상을 기록한다. 이는 태양광과 풍력발전이 적합한 조건으로, 영광군은 수년 전부터 다수의 민간과 공공 에너지 기업들의 주목을 받아왔다.

영광군은 전체의 자연 여건을 ‘지속 가능한 성장의 에너지’로 전환, 에너지 중심도시로의 도약을 본격화하고 있다.

에너지 중심도시 전략의 첫걸음은 전력 생산이다. 영광군은 해상풍력 및 태양광 발전을 본격화하며 자체 에너지 생산 역량을 확보하고 있다. 단순한 에너지 공급지 역할에 그치지 않고 생산된 전력을 중심으로 배후 산업단지와 물류·정비 기능을 갖춘 거점기지를 조성하고, 관련 기업과 기관 유치에 나선다는 복합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O&M(Operation&Maintenance) 거점기지’ 구축은 전략의 핵심이다. 기지는 해상풍력 유지관리 기능을 갖춰, 부품 정비, 기술지



영광 칠산 바다에 설치된 풍력발전소.

영광군 제공

원, 선박 관리 등 고부가가치 산업을 함께 수반한다.

영광군은 지역에서 생산되는 것을 지역에서 소비하는 ‘지산지소’를 원칙으로 전력 소비 구조 변화를 준비하고 있다.

지역에서 생산된 전력을 지역 내에서 우선 소비하고, 에너지 생산지로서의 혜택을 주민과 기업에 돌려주는 전력 요금 차등제도 함께 추진한다. 영광군은 제도가 도입되면 전력 사용 비용이 낮아지면, 기업에 매력적인 입지 조건을 갖춘 산업지로 평가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영광군은 O&M 거점기지 조성 성과를 기반으로, 에너지 특화 국가산단 지정을 준비하고 있다. 영광군은 에너지 생산·소비·산업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구조를 바탕으로, 중앙정부와

의 협의를 통해 국가 단위 산단 지정을 모색하고 있다. 첨단기술, 수소 산업, AI 및 데이터센터 등 전력 다소비형 고부가가치 산업 유치에 나섰다.

영광군은 에너지 중심도시 조성을 추진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하고, 인구 증가를 끌어내겠다는 목표다. ‘인구 10만 자립 도시’는 에너지에서 시작해 산업, 일자리, 주거, 교육, 문화까지 갖춘 지속 가능한 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종합 계획인 셈이다.

영광군 관계자는 “에너지는 더 이상 대규모 사업자의 소유물이 아니라, 지역과 주민이 함께 만들어가야 할 공공자산이다”며 “영광이 가진 자원을 바탕으로 새로운 성장 사슬을 만들고, 주민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돌아가는 구조를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 영광=서희권 기자

품격 팽개친 신안군수협 조합장

기지수첩



이주열

제2사회부 신안국장

김길동 신안군수협 조합장이 구설에 올랐다. 김 조합장은 지난 22일 국내 김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사)한국김산업개발원이 주최한 토론회에 불참했다. 같은 날 제주도에서 열린 어촌계장 단합대회 격려가 이유다.

토론회는 우리나라 김산업의 현황과 관계, 다음 정부의 김산업 발전정책과 한국김산업진흥공사 추진 방안 등을 논의하며 김산업의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 주철현, 서삼석, 김원이, 이개호 국회의원들과 김청룡 목포수협 조합장, 문철인 완도수산수협 조합장, 박우량 전 신안군수 등이 참석할 만큼 토론회 관심이 뜨거웠다.

김 조합장은 신안군이 주최한 수산물 축제 때마다 열도당토당은 발언을 쏟아내 눈총을 받기 일쑤다.

“치녀가 알을 뺐다”, “옛날에는 엄마, 아버지 허락하에 다 알을 뺐었다.” 지난 23일 열린 낙지축제에 참석한 김 조합장의 축사 중 일부다.

김 조합장은 “수협은 1년에 두 번씩 낙지 방류를 하고 있다”며 “김대인 신안군수 권한대행도 낙지 방류 사업 예산을 집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

신안군은 이미 낙지 방류를 계획 중에 있다. 금여기 이전인, 다음달 5,000만원을 들여 방류 정점인 지도와 선도 외 3곳에 어린 낙지

5,000마리를 방류할 예정이다. 뜬금없는 말도 이어졌다. “김문수 도의원은 많이 도와주고 있다. 최미숙 도의원도 많이 도와 달라. 그래야 낙지 축제가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조합장은 지난 15일 흑산 홍어축제에 참석해서도 부적절한 말을 내뱉었다.

그는 “수협은 홍어잡이 선단을 위해 국회, 관련기관을 방문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행정에서는 아무것도 안 한다. 의원들이 관심을 갖고 도와달라”며 질타성 발언을 이어갔다.

신안군은 흑산도 홍어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차별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총허용어획량(TAC) 적용 지역 확대와 수산물이력제가 대표적이다.

지난 2020년 국가 중요어업 유산으로 지정된 흑산 홍어잡이 어업의 명품화와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홍어 썰기 학교’도 운영 중이다. 소비자 신뢰를 위한 QR코드 유통 체계도 갖췄다.

참홍어 어족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 및 적극적 보호를 위해 지지줄 기준 구역 고시 개정과 불법 어업과 위법한 어획물 거래 행위 지도 단속 강화, TAC 미참여 어선 조업 및 유통 제한 등도 관계부처에 지속해서 건의하고 있다.

최근에는 목포시, 나주시와 함께 홍어 식문화의 유네스코 인류 무형유산 등재를 위한 공동 협약도 체결했다.

하나만 알고 둘은 몰라서 벌어지는 일이다. 김 조합장의 말은 앞과 뒤가 맞지 않고, 힘조차 없으며 논리 또한 찾아볼 수 없다.

수산업 발전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협력해야 할 신안군을 비토하는 일은 적절치 않다. 3,000여명의 조합원을 둔 수장으로서 품위는 지켜야 할 덕목이다.

나주시, 개화기 과수농가 냉해 피해 전수조사

내달 3일까지 배·사과·복숭아 등

나주시는 올해 3~4월 발생한 이상 저온 현상으로 냉해를 입은 과수농가를 대상으로 피해 전수조사를 오는 6월 3일까지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올봄 저온 현상으로 배를 비롯한 주요 과수 품목에서 꽃눈 고사사 결실 저하 등 저온 피해가 광범위하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주시는 피해 규모가 클 것으로 예상, 이상 저온 발생 초기부터 피해 동향을 점검하고 조기 보고 체계를 운영하는 등 선제적 대응에 나섰다.

전수조사는 실제 피해 규모를 면밀하게 파악하고 복구 대책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를 위해 이뤄진다.

나주시는 6월 3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중심으로 개화기 발생한 과수 꽃눈 피해와 이로 인한 결실 저하를 파악하는 데 집중한다.

냉해를 입은 과수농가에선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등을 준비해 농지가 소재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하면 공무원, 마을 이·통장, 해당 농가가 함께 현장 정밀 조사를 진행하게 된다.

조사 결과는 향후 재해 지원금 지급, 재해 복구 계획 수립, 정책자금 지원 여부 판단 등에 활용된다.

과수류는 1ha 기준 농약대 276만원을 지원하고 피해를 50% 이상은 생계비 지원, 정책자금 상환 유예, 이자 감면, 고등학생 자녀 학자금 감면 등 추가적인 지원이 이어진다.

나주시는 전수조사를 바탕으로 재해복구비 등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반복되는 이상기후에 대응한 생산시설 현대화, 재배 기술 개선 등 중장기 전략도 함께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정확한 피해 조사와 신속한 지원 대책 마련을 통해 과수농가의 경영을 안정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나주=이재순 기자

함평천지물서 오늘부터 한우 20% 할인판매

함평군이 가정의 달을 기념해 함평한우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온라인 기획전을 개최한다.

25일 함평군에 따르면 ‘함평천지물’에서 26일부터 30일까지 ‘5월의 감동식탁’ 기획전을 열어 함평한우를 2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한다.

기획전은 가족 중심 소비가 집중되는 5월에 맞춰 함평군과 함평축협이 협력해 내수 경기 활성화와 지역 농가 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했다.

기획전 기간 동안 함평축협 축산물유통센터에서 제공하는 행사 상품을 2만원 이상 구매 시 사용할 수 있는 20% 할인쿠폰을 1인당 3매(최대 5만원)이 제공된다.

‘함평천지물’은 함평군이 운영하는 온라인 직거래 소품몰로 신선하고 품질 좋은 지역 농축산물을 바탕으로 소비자와의 연결고리를 넓혀가고 있다. 함평=윤예중 기자

클릭! 고향속으로



장성 진원면-나주 빛가람동, 상호 고향기부

장성군 진원면과 나주시 빛가람동이 최근 나주시 빛가람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상호 고향사랑기부를 실천했다.

상호 기부에는 100명이 1000만원을 기부했다. 장성군 진원면에서는 행정복지센터와 진원농협, 진원초등학교, 진원동초등학교가 기부에 동참했다. 나주시 빛가람동에선 행정복지센터 등 6개 기관이 함께 했다.

진원면과 빛가람동은 고향사랑기부 실천을 계기로, 지역발전을 위해 꾸준히 소통·협력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최정순 진원면장은 “이번 기부가 지역 간 나눔 실천을 활성화하고 교류의 폭을 넓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성=전일용 기자



신안소방, 산사태 대피 유관기관 합동훈련

신안소방서는 최근 산사태 취약지로 지정된 압태면 수곡리 수곡경로당에서 관계기관 합동 산사태 대피훈련을 실시했다고 25일 밝혔다.

훈련은 소방서 119구조대·신안군·산림조합·경찰 인원과 마을주민 등 3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초기 대응부터 주민 대피, 인명구조, 피해 복구까지 전 과정을 각 기관별 역할에 따라 모의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구조대는 실시간 보고·지휘체계를 점검하고 협조 방안을 공유했다.

119구조대장은 “기관 간 협력과 유기적인 정보 공유가 재난 대응의 핵심인 만큼 선제적 훈련을 통한 관계기관 협력체제로 국민의 생명·재산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안=이주열 기자



목포시 신흥동 주민자치회, 청소년 역사탐방

목포시 신흥동 주민자치회는 최근 2박 3일간 일정으로 청소년 해외역사문화탐방을 실시했다고 25일 밝혔다.

탐방에는 신흥동 거주 청소년 10여명이 참여해 거제 포로수용소, 부산 UN공원, 국제시장, 일본 대마도 등을 방문해 역사와 문화, 안보의 중요성을 직접 체험했다. 청소년들은 전쟁의 아픔과 평화의 소중함을 되새기며 미래 세대로서의 책임감을 느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

강성우 신흥동 주민자치회장은 “역사탐방을 계기로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역사 인식과 국제 감각을 키우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목포=박승경 기자